

‘이어가라’ 최민정 ‘일어나라’ 심석희

오늘 밤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 최민정 2관왕·‘노메달’ 심석희 2연패 각오

‘쌍두마차’를 앞세운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관왕과 2연패를 거뒀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29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에 나선다. 쇼트트랙은 한국의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이다. 여기에 여자 3000m 계주는 가장 확실한 ‘금밭’이었다. 한국은 앞선 7개의 올림픽 여자 계주 금메달 중 5개를 독차지했다. 한국 여자 계주팀이 출전하지 않았던 1992년 알베르빌 대회를 제외하면 밴쿠버 대회가 열렸던 지난 2010년 단 한 차례만 시상대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사실 2010년에도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팀은 한국이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5연패를 기뻐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던 대표팀 선수들의 웃음은 곧 눈물이 됐다. 김민정이 경기 도중 중국의 쉐런린을 제치는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실격이 선언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자 계주 결승

전 주심이었던 호주 휴이시 심판은 ‘오노 사건’ 당시 김동성에게 실격패를 선언했던 인물로 한국과의 악연이 계속됐다. 실격패의 아쉬움을 뒤로한 한국은 2014 소치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여자 계주 우승을 이루며 세계 정상임을 재확인했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500m 실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1500m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성남시청)과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계주팀 막내로 금메달을 수확했던 심석희(한국체대)가 금빛 레이스를 이끌 ‘쌍두마차’다. 한국은 앞선 3000m 계주 예선에서 무서운 저력을 과시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었다. 레이스 초반 이유민(서현고)이 넘어지면서 어쩔한 순간을 맞았지만 최민정이 손터치를 한 뒤 추격에 나섰다. 한국은 이후 반 바퀴 이상 벌여졌던 격차를 점점 줄여 간 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역전

극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올림픽 기록까지 경신한 놀라운 질주였다. ‘쌍두마차’에게는 2관왕과 2연패가 걸린 경기다. 최민정은 1500m 결승에서 놀라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남자 1500m의 임효준에 이어 쇼트트랙에서 두 번째 금빛 소식을 전했다. 이번 계주 경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나치던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된다. 그리고 여자 1000m 경기까지 남겨두고 있는 만큼 계주 결과에 따라 최민정은 3관왕까지 넘볼 수 있다. 심석희에게는 아쉬움을 떨어내야 할 ‘2연패’ 경기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500m 예선에서 탈락했던 심석희는 1500m 예선에서는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메달에 도전조차 못 해 봤다. 심석희는 앞선 두 경기의 아쉬움을 털고 2014 소치 올림픽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 오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심석희가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男 팀추월 金 보인다 1위로 준결승 진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첫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을 상쾌하게 내디뎠다. 이승훈(대한항공)-정재원(동북고)-김민석(성남시청)이 호흡을 맞춘 대표팀은 18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팀추월 준결승에서 3분39초29의 기록으로 8개 출전팀 가운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2조에서 이탈리아(3분41초64)와 레이스를 치른 한국은 16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침착하게 선두를 바꿔가며 안정적인 질주를 펼쳤다. 첫 바퀴를 17초68로 마친 한국은 이후 꾸준히 13초대 캠퍼임을 유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은 이날 준결승에서 4위를 차지한 뉴질랜드(3분41초18)와 21일 오후 8시22분 준결승을 치르게 됐다.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최강 전력’ 네덜란드를 준결승에서 피했다. 준결승에서 2위를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네덜란드(3분40초03)는 3위 노르웨이(3분40초09)와 맞붙어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민유라-캠린 ‘아리랑’ 볼 수 있다 피겨 아이스댄스 프리 진출

피겨 아이스댄스 민유라(23)-알렉산더 캠린(25) 조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쇼트 댄스에서 16위를 차지해 프리 댄스 진출에 성공했다. 민유라-캠린 조는 1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쇼트댄스에서 기술점수(TES) 32.94점, 예술점수(PCS) 28.28점을 합쳐 61.22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공인 최고점 61.97점은 다소 못 미치지만 앞서 팀이벤트 쇼트에서 민유라 상의 후크가 풀리는 악재 속에서 받은 51.97점보다 며칠 만에 크게 올랐다. 민유라-캠린은 20일 프리댄스에서 ‘아리랑’에 맞춘 프리 댄스 연기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재미교포인 민유라와 귀화 미국인인 캠린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 한국 아이스댄스 선수로는 처음 출전해 24위를 기록한 양태화-이천군 조를 넘어 한국 최고의 올림픽 성적도 기록하게 됐다. 이날 민유라-캠린은 정열적인 라틴 리듬에 맞춰 호흡을 데 없는 연기를 펼쳤다.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에 맞춰 안무를 시작한 두 선수는 롬바 시퀀스를 자신감 있게 수행해 최고 레벨인 레벨4를 받았다. 이어 롬바 리듬의 ‘마이올’로 음악이 바뀌고 민유라-캠린은 신체의 일부를 접촉한 채 취야 하는 패턴 댄스 타임 스텝 시퀀스를 레벨3으로 수행했다. 캠린이 민유라를 들고 곡선으로 이동하는 고난도의 커브 리프트는 레벨4로 마쳐 관중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삼바 리듬의 ‘무헤르 라티나’에 맞춰 두 선수가 나란히 서서 똑같이 회전하며 이동하는 싱크로나이즈드 트위즐을 역시 최고 레벨(4)로 수행했다. 손을 잡지 않은 채 연기하는 닛 터칭 미들라인 스텝 시퀀스는 레벨3으로 소화한 것을 끝으로 다섯 가지 과제를 모두 마쳤다. 모든 과제에서 수행점수(GOE) 가산점을 챙겼다. 점수를 확인한 민유라는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고, 캠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감쌌다. 이날 민유라는 쇼트댄스의 ‘의사 사고’ 이후 “웃을 단단히 여미겠다”고 약속한 대로 상의 위쪽 후크를 단단히 채우고 끈도 더 두꺼운 것으로 바뀌어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여자 컬링 ‘팀 킴’ 강팀에 강한 이유는? “상대가 누구든 신경 안쓴다”

세계 1위·2위·5위 잇따라 격파...5승 1패로 공동 1위 강팀과 수 많은 경험 통해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 쌓여

“저희 대답은 항상 같아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생각 안 하고 우리 탓에만 집중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강팀을 연파한 여자컬링 대표팀이 최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여자컬링 대표팀은 세계랭킹 8위지만, 지난 15일 예선 첫 경기에서 세계랭킹 1위 캐나다를 무너뜨리며 파란을 예고했다. 일본(세계랭킹 6위)에 역전패를 당했지만 세계랭킹 2위 스위스, 2017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중국(세계랭킹 10위)에 이어 19일에는 세계랭킹 5위 스웨덴까지 7-6으로 꺾으며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스웨덴은 5전 전승으로 이번 올림픽 최강국으로 부상했으나, 한국에 첫 패배를 당했다.

강팀에 강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표팀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상대는 신경 안 쓴다”는 것이다.

김민정 감독은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 정신력 훈련을 해왔다.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중국전 승리는 각별했을 법했다. 대표팀은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중국에 패하고 “평창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설욕을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팀은 중국전 승리 후에도 “똑같았다. 집중하자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동계아시안게임 결승전 5-12 패배를 이번 올림픽 예선에서 12-5로 정확히 되갚아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선영은 “물랐다. 지난 일은 벌써 다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한일전 패배는 쓴 약이 됐다. 김경에는 “일본과 했을 때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게 패인이었다. 그래서 다음 경기부터는 내 사투를 만드는데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은 수많은 경험이 쌓여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강조한다. 김민정 감독은 “첫째는 경험이다. 우리의 성장은 결국 경쟁에서 얻었다. 국제대회에서 강팀들과 상대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에는 “지금 올림픽에 출전한 팀들과 많이 붙어봐서 그들의 스타일을 안



19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여자 컬링 예선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 중 한국 선수들이 스톤을 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권태명 기자

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은정은 “우리 수준이 낮았을 때는 이런 정상의 팀들과 겨룰 수 없었는데, 정상 팀들과 경기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노력해주셨다. 지금은 자신감이 생겨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빙판 위 체스’라 불리는 컬링은 운동능력 외에도 집중력과 정신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표팀은 대회 중 집중

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수촌에서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으로 외부 소식을 접하다 보면 ‘악성 댓글’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팀은 미술스포츠심상 훈련, 개리 성향 테스트 등 심리 훈련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까지 익혔다. 세세한 부분까지 공들인 결과로 여자컬링 대표팀은 ‘강팀 저력’이 됐다. /연합뉴스